한국 현대시와 섬*

– 공간적 인식과 의미를 중심으로 –

김선태(목포대)

〈목 차〉

1. 서론
2. 섬의 공간적 인식과 의미
3. 결론

1. 서론

이 글은 한국현대시인들이 '섬'을 소재나 주제로 한 작품 속에서 '섬'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바다'와는 달리 '섬'에 대한 외형적 공간인식을 넘어선 문학적 차원의 접근이나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설에 비해 시를 통한 섬의 공간인식이나 의미 탐구는 더욱 그렇다.[1] 따라서 이 글은 이에 대한 하나의 시론(試論)으로서 성격을 갖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07).

1)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 남진숙의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섬의 공간성 및 그 의미」(『도서문화연구』 제42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3. 12.)가 있다. 이 논문은 어쩌면 최초의 연구물이긴 하나 텍스트 선정과 해석 그리고 유형 분류의 적절성 여부에 있어서 미진한 점을 안고

www.kci.go.kr

는다. 또한 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해양문학에 대한 연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추어 섬을 노래한 시들에 대한 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섬을 뜻하는 영어 'island'는 육지를 뜻하는 'land'에 물을 뜻하는 접두사 'is'가 결합된 합성어로서 '물 가운데 있는 특별한 육지'를 의미한다. 미학적 에세이집 『섬』의 저자 장그르니에는 섬의 어원 자체에 '격리되다(isole)'[2]의 뜻을 품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는 island를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일 때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라고 정의하면서(제1항), 일정한 영해(領海),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제2항). 또한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바위섬은 rock이라 칭하고 island와 구별하여 제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제3항). 이를 한자어인 '도서(島嶼)'의 개념과 대비시켜보면, island는 '도(島)'에, rock는 '서(嶼)'에 각각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우리는 이를 통칭해서 '섬'이라고 부른다.[3]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섬은 2010년 1월 기준 유인도 482개, 무인도 2,876개(85.65%)로 모두 3,358개라고 한다.[4] 가히 섬의 나라라고 할 만하다. 이들 대부분의 섬들이 리아스식 해안인 서남해안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무인도의 수가 유인도의 4배 이상이 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최근 들어 유인도는 물론 무인도까지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섬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 국가의 영토 영역으로서 주변 해양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섬을 둘러싼 그 주변 해양 자원의 중요성을 국가마다 인식하면서,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분쟁, 쿠릴 열도를 둘러싼 러·일 간의 영토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섬에 대한 인식과 그 중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를 보완한 측면이 있음을 밝힌다.

2) 장 그르니에/김화영 역, 『섬』, 민음사, 2008, 124쪽.
"우리는 섬에 가면 격리된다 isole-섬의 어원 자체가 그렇지 않은가? 섬, 혹은 혼자뿐인 한 인간…"

3) 강봉룡, 「'도서해양'에 대한 인식의 굴곡과 변천」, 『제3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자료집·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2, 6쪽 재인용.

4)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전국지자체를 통해 내부적으로 잠정 집계한 개수는 4,201개로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무인도가 많아서 정확한 개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www.kci.go.kr

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국가마다 섬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을 국익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5]

공간적 인식 차원에서 섬은 두 가지 상징성을 지닌다. 하나로서 전체인 완벽성과 격리되어 있다는 고립성이다. 또한 풍요로움과 척박함, 부드러움과 거침이 공존한다. 이는 섬이 바다라는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섬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한다. 기교적 수사가 아닌 이상 어느 섬이든 그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섬도 자기 고유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적 파장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섬은 외부의 미세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외부 세력에 의해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몇몇 섬들이 그 단적인 증거이다. 제주도, 강화도, 거제도, 거문도, 독도 등과 같은 섬은 거기에 깃든 고통의 역사를 모르고서는 섬의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

또한 섬은 각기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고, 벌어진 사건이 매우 복잡해도 그 모두를 포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가 종종 고향을 떠올리며 심적 위안을 받듯이, 섬은 자신과 함께 한 존재들을 관용의 문화로 감싼다. 에드워드 렐프[6]의 말처럼 "시간은 보통 우리의 장소 경험의 일부"이고, "이 경험들은 반드시 끊임없는 변화나 계속성과 묶일 수밖에 없다면, 섬이 축적한 시간은 눈으로만 적출하기 어렵다. 문학은 그 내부로 들어가 심미적 촉수를 뻗어 우리와 공존하는 섬의 실체를 찾고자 한다. 섬과 문학의 관계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학은 섬의 겉모습만 찾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오히려 섬에 응축된 시간의 흔적, 섬을 스쳐간 사람과 사건의 깊이에 우리의 몸을 드리우고, 섬과 삶을 둘로 나누기보다 상호 소통과 심연에 천착한다.

따라서 어느 섬이든 섬 자체로 완결되지 않는다. 섬은 우리 인간이 만든 갖가지 상징을 통해 그것이 지닌 물질적 경계를 넘어서고 물질로 전달할 수 없는 것까지 전달한다. 따라서 섬은 외로움과 그리움, 치유와 구원, 소외된 삶과 역사적 현장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인간 내면의 바다에 떠 있는 관

5) 남진숙, 앞의 논문, 182쪽.

6) 에드워드 렐프/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1996 참조.

www.kci.go.kr

념적 실체로서의 상징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의 진폭을 지닌다. 이것이 섬에 대한 문학적 인식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현대시에 나타난 섬에 대한 공간적 인식은 어떠하며, 또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공간적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7]

2. 섬의 공간적 인식과 의미

2.1. 외로움과 그리움의 공간

섬은 뭍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공간이다. 혹은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뭍이다. 따라서 고립과 단절의 상징으로 통한다. 그것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얼른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데서 비롯한다.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소통의 수단이 배이다. 근래에 들어와선 연륙교 건설이나 정보통신의 발달이 그 거리를 상당 부분 메워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섬은 여전히 섬이다. 연륙교 건설의 경우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해 섬이 섬다움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이렇듯 섬은 뭍으로부터 홀로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불러일으키며,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입장에선 그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나는 오래 전부터 등대가 서 있는 무인도에도 주소가 있을까 하는
> 생각을 해왔다
> 주소를 알게 되면 시집 한 권 보내고 싶어서 그랬다
> 그러던 어느 날 선미도 등대에서 장씨라는 분이 이런 글을 보내왔다
> (중략)
> <지도엔 없을 겁니다
> 이 섬은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북리에 있는 섬인데 무인도와 같아서
> 이 주소로는 편지가 오질 않습니다. 편지를 하시려면 인천직할시 항만

7) 한국현대시작품 중 '섬'을 노래한 시들은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이들 개별적인 시편들을 일일이 헤아려 집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이들을 한 권으로 묶은 시집도 없다. 이 글이 뚜렷한 작품선정기준이 없이 유형에 맞는 대표적인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여기에 있다.

www.kci.go.kr

청으로 하십시오>
(중략)
집배원이 오질 않고
갈매기만 날아듭니다

- 이생진, 「선미도-등대원의 편지」 부분[8].

선미도라는 섬에서 등대원으로 근무하는 '장씨'가 시적 화자에게 보낸 답신의 형식을 띠고 있는 이 시는 직접적으로 '외롭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편지 내용에서 지독한 외로움이 묻어난다. 이는 선미도라는 섬이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북리' 부근에 있지만, 등대지기 '장씨' 외에는 거주하는 사람도 없고,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집배원도 오지 않는' 무인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이 철저하게 막혀버린 고립된 공간임을 의미한다. 사실 '장씨'마저도 거주자가 아니라 등대지기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섬에 닿을 수 있는 수단은 '장씨'가 가끔씩 뭍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해 타고 가는 사선과 휴대폰이 전부일 것이다.

여기에서 관심의 초점은 막힌 공간으로서 섬이 주는 고립감도 있지만, 로빈슨크루소우처럼 그곳에 홀로 남아 있는 '장씨'가 느끼는 외로움일 터이다. 주지하다시피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므로 그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는 섬과 바다라는 무언의 자연뿐이다. 따라서 그의 존재는 선미도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선미도 그 자체라고 해도 무방하다. '집배원이 오질 않고/갈매기만 날아듭니다'라는 표현이 그가 느끼는 외로움을 절실하게 대변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바다에 떠 있는 2,876개의 무인도는 선미도처럼 고립과 단절에 따른 외로움의 표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 말인가
대부도와 제부도 사이
그 거리만큼이면 되지 않겠나
손 뻗으면 닿을 듯, 그러나

8) 김명수·최영호 편, 『내 마음의 바다·1』, 엔터, 1996.

www.kci.go.kr

닿지는 않고, 눈에 삼삼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깊이 말인가
제부도와 대부도 사이
가득 채운 바다의 깊이만큼이면 되지 않겠나

그리움 만조로 가득 출렁거리는,
간조 뒤에 오는 상봉의 길 개화처럼 열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말인가 이별 말인가
하루에 두 번이면 되지 않겠나
아주 섭섭지는 않게 아주 물리지는 않게
자주 서럽고 자주 기쁜 것
그것은 사랑하는 이의 자랑스러운 변덕이라네

– 이재무, 「제부도」 전문[9].

연애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와 '깊이', '만남'과 '이별'을 '제부도'와 '대부도'의 '사이'에 견주어 이야기하고 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는 '대부도와 제부도 사이' 정도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는 '손 뻗으면 닿을 듯, 그러나/닿지는 않고, 눈에 삼삼한,' 그런 가깝지만 애타는 거리이다. 흔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거리는 너무 가까워도 안 좋고, 너무 멀어도 안 좋다고 한다. 너무 가까우면 그만큼 잘 보여서 호기심이 빨리 줄어들고, 너무 멀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 가까이 다가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거리의 미학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사랑을 하려면 적당한 '거리두기'[10]를 잘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럼에도 시인은 적당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가까울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안산의 대부도와 화성의 제부도는 연인들처럼 지근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그 사이를 서해의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있다. 섬과 섬끼리 서로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생기

9) 이재무, 『시간의 그물』, 문학동네, 1997.

10) '거리두기'는 시 창작방법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비유에 있어서 '거리두기'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거나 먼가에 따라 달라진다. 너무 가까우면 단순하고 쉬운 시가, 너무 멀면 추상적이고 난해한 시가 되므로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www.kci.go.kr

는 거리, 그것은 곧 그리움의 거리이다. 그 거리가 없다면 그리움은 싹트지 않는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깊이'도 '제부도와 대부도 사이/가득 채운 바다의 깊이'만큼이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두 섬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바다의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 그것은 간조 때 드러나는 바닥을 보면 그리 깊지 않는 비교적 얕은 경우에 해당한다. 만조 때면 그리움으로 '가득 출렁거리'다가도, 간조 때면 '상봉의 길 개화처럼 열리는,' 그런 제부도와 대부도 사이의 바다 깊이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생각하는 사랑의 깊이는 너무 깊어 수렁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비교적 얕아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이별'도 마찬가지다. 제부도와 대부도 사이의 바다가 하루에 두 번씩 물이 들고 나듯이 '하루에 두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한다. '아주 섭섭지는 않게 아주 물리지는 않게' 치고 빠지는 그런 비교적 가벼운 만남과 이별 말이다. 다시 말해 바다가 원래 변화무쌍한 속성을 지니고 있듯이 자주 좋았다가도 싫어지는 그런 변덕스러운 사랑을 뜻한다. 아무튼 이 시는 대부도와 제부도가 서로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거리의 미학을 통해 섬이 그리움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2. 치유와 구원의 장소

예로부터 섬은 죄를 지은 사람을 격리·유배시키는 최적의 장소로 활용되어왔다. 그것은 섬이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고립과 폐쇄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섬은 그 자체로 형벌의 장소요 감옥이 된다. 그러나 섬으로 많은 정치인이나 문인들이 권력의 아수라장을 벗어나 유배지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좋은 저술활동을 벌인 덕분에 우리 옛 문학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대표적으로 추사 김정희가 그렇고, 서포 김만중이 그렇고, 손암 정약전이 그렇고, 면암 최익현이 그렇다. 게다가 섬이 현실의 전면에서 벗어나 있다는 탈속성 때문에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이 숨어들어가 조용히 안식을 취하며 상처를 치유한 뒤 재활의 에너지를 얻어 돌아오기 좋은 장소로도 인식되어왔다. 때로는 섬이 이상향이나 환상과 구원의 장소가 되

www.kci.go.kr

기도 한다. 비록 실재하진 않지만 허균의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전북에서는 군산 앞바다에 떠 있는 선유도로 추정하기도 함)이나 제주도 사람들의 이상향인 이어도의 경우가 그것이다.

> 상한 짐승처럼 절뚝거리며 스며들고 싶었다 더는 갈 수 없는 작부들의 종착역
> 슬픔은 더 깊은 슬픔으로 달래라 했던가
> 늙은 작부 무릎에 슬픔을 눕히고 그네의 서러운 인생유전을 따라가고 싶었다
> 삭을 대로 삭은 홍어 살점을 질겅질겅 씹으며 쓰디쓴 술잔을 들이켜고 싶었다
> 그렇게 파란만장의 시간을 가라앉혀 제대로 된 슬픔에 맛이 들고 싶었다
> 때론 누추한 패잔병처럼 자진 유배를 떠나고 싶었다 살아서 돌아갈 수 없는 천형의 유배지
> 절망은 더 지극한 절망으로 맞서라 했던가
> 후미진 바닷가에 갯고둥 하나로 엎어져 흑흑 파도처럼 기슭을 치며 울고 싶었다
> 다시는 비루한 싸움터로 나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대로
> 애간장 까맣게 타버린 한 점 섬이 되고 싶었다
>
> – 김선태, 「흑산도」 전문[11].

흑산도는 예로부터 천형의 유배지로 통했다. 『자산어보』를 썼던 손암 정약전처럼 한번 그곳으로 유배를 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물고기가 많이 잡혀 파시가 형성된 탓에 선원들을 상대로 한 술집 작부들이 많았던 곳이기도 하다. 육지의 여러 술집을 전전한 작부들의 마지막 종착지가 흑산도였다. 이 작부들도 한번 흑산도까지 밀리면 다시는 육지로 돌아가지 못한 채 그곳에서 늙어 생을 마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흑산도가 슬픔과 절망을 다스리는 치유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위 시의 시적 화자는 현실의 전면인 '싸움터'에서 패배하여 슬픔과 절망에 휩싸인 존재이다. 그가 '상한 짐승처럼 절뚝거리며' 홀연히 찾아든 곳은 '작부들의 종착역'이요 '천형의 유배지'인 흑산도. 이는 흑산도가 희망의 빛이라고는 없는 그 이름처럼 캄캄한 절망의 막장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11) 김선태, 『그늘의 깊이』, 문학동네, 2014.

www.kci.go.kr

왜 화자는 하필이면 도피처로 이러한 곳을 택한 것인가. 그것은 '슬픔은 더 깊은 슬픔으로 달래고', '절망은 더 지극한 절망으로 맞서'기 위해서이다. 이른바 치유와 재생을 위한 역설의 논리이다. 그에게 위안과 안식을 주게 되는 대상도 젊고 예쁜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아 퇴물로 전락한 '늙은 작부'이다. 홍어처럼 폭삭 삭은 '그네의 서러운 인생유전'이 오히려 그에게 위안과 치유의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상처를 치유하고 나서도 다시 '싸움터'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 '비루한 싸움터' 대신 흑산도에 섞이는 삶을 택한다. 섬 자체가 그에게 치유와 재생의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치면
바위에 부서지는 흰 물결 보며
제주 아낙들은 고기잡이 떠난
남편과 아들을 걱정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가면
기어이 제주 여인들은
이어도를 보아야만 했다

해남길의 반쯤 어딘가에 있을
풍요의 섬 이어도
안락의 섬 이어도

제주여인들은 섬을 믿었다
저 바다 멀리 어딘가에 있는
아픔도 배고픔도 없는 연꽃 가득한 섬
남편과 아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섬을

높은 파도에서만 모습 보이는
수면 아래 4.6미터 수중암초
어부들이 죽음에 임박해서나 봤을 섬

www.kci.go.kr

제주 여인들에게 위안을 주던 섬

이어도를 찾던 사람들이
전설을 넘어
마침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세웠다
망망대해에 우뚝 선
제주여인의 기원으로 피어난 연꽃 기지

– 양금희, 「이어도가 보일 때는」 부분[12].

이어도는 제주시 마라도에서 149㎞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 암초이다. 파랑도로도 불리는 이어도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환상과 피안의 이상향이요 구원의 섬으로 통한다. 또한 삶이 지겹도록 고달프면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로서 곧 죽음의 섬이기도 하다. 제주도 해녀들은 남편이나 아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어도로 갔다고 모두들 믿었다. 그래서 이청준의 소설『이어도』도 이렇게 시작한다. "긴긴 세월 섬은 늘 거기 있어 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섬으로 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다시 섬을 떠나 돌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2003년에는 이 수중 암초에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됐다.

제주도 출신 시인이 쓴 위의 시는 이어도에 대한 '제주 아낙들'들의 생각과 믿음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1연에서는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치면' 의례히 '남편과 아들'이 사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녀들의 걱정을, 2연에서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고/몇 달이 가면' 기어이 '이어도를 보아야만 했다'는 진술을 통해 남편과 아들이 죽어 마침내 이어도로 갔음을 떠올리는 비극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3·4·5연은 제주도 여인들이 그 남편과 아들을 삼켜버린 이어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믿음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해남길의 반쯤 어딘가에 있'을 이어도가 '아픔도 배고픔도 없는 연꽃 가득한' 풍요로운 이상향이요, '남편과 아들을/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의 섬이라는 믿음이다. 6연에서는 섬이라고만 믿어왔던 이어도가 수중 암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 거기에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다. 시인은 해양과학기지를 굳

12) 양금희, 「이어도가 보일 때는」, 『펜문학』, 2011년 9·10월호.

www.kci.go.kr

이 '제주여인의 기원으로 피어난 연꽃 기지'라고 긍정적으로 미화하고 있지만, 그것은 곧 이어도라는 존재의 침몰을 뜻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애석한 일이라고 해야 옳다. 전설 속에 끼어드는 과학적 사실은 그래서 이물스럽다. 이는 달나라에 옥토끼가 계수나무 아래에서 떡방아를 찧고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로켓을 쏘아 달나라에 가서 확인해보았더니 거짓으로 판명된 것과 같다. 비록 그것이 과학적 사실이 아닌 허황한 환상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인류는 달에 대한 무궁한 상상과 꿈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제주도 사람들이 믿었던 이어도에 대한 모든 환상은 깨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꿈과 환상이 있는 문학은 과학보다 위대하다.

2.3. 소외와 척박한 삶의 공간

전술한 바대로, 섬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립된 공간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심 공간이 육지라고 한다면 섬은 이 중심 공간으로부터 소외된 공간이다. 지금이야 교통수단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섬은 고립과 소외의 공간이다. 예로부터 섬사람들이 그토록 섬을 벗어나 육지로 이주하기를 바랐던 것도 이 소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을 터이다. 특히 가까운 섬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의 경우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섬은 고립된 공간임과 동시에 실체적 공간이기도 하다. 거기에도 섬사람들이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육지가 있고, 주변에 바다와 갯벌이 펼쳐져 있으며, 오랜 시간 속에서 생성된 그 나름의 역사와 문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엄연한 삶의 공간인 것이다. 이른바 섬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다(어쩌면 지구상의 바다를 제외한 모든 육지는 섬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그 삶의 공간에는 풍요로움과 척박함이 공존한다. 이것이 밖에서 그저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섬사람들의 삶이다.

너무 멀고 험해서
오히려 바다같지 않는

www.kci.go.kr

거기
있는지조차
없는지조차 모르던 섬.

쓸 만한 인물들을 역정 내며
유배 보내기 즐겼던 그때 높으신 분들도
이곳까지는
차마 생각 못 했던,

그러나 우리 한민족 무지렁이들은
가고, 보이니까 가고, 보이니까 또 가서
마침내 살 만한 곳이라고
파도로 성 쌓아
대대로 지켜오며
후박나무 그늘 아래서
하느님 부처님 공자님
당 할아버지까지 한식구로 한데 어우러져
보라는 듯이 살아오는 땅.

- 조태일,「가거도」 전반부[13].

가거도는 국토 최서남단 바다 위에 떠 있는 외로운 섬이다. 지금이야 목포에서 쾌속정을 타고 5시간가량이면 닿을 수 있지만, 약 30년 전에만 해도 하도나 멀고 풍랑이 험해서 접근이 매우 어려웠던 섬이다. 실제로 목포엘 나갔던 가거도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면 흑산도쯤에서 발이 묶인 채 일 주일 혹은 한 달 정도를 속절없이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가도 가도 뱃길의 끝이 보이지 않는 섬"이라고도 하고, 다시 뭍으로 나오기도 쉽지 않은 탓에 "가거든 오지 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주변 바다에서 잡히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풍광이 빼어나서 신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장보고 선단이 중계무역을 하던 시절 풍랑을 피해 쉬어갔던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하다.

13) 조태일,『가거도』, 창작과비평사, 1983.

www.kci.go.kr

위의 시는 가거도가 얼마나 소외된 섬의 전형인지를 잘 보여준다. '너무 멀고 험해서', '있는지조차/없는지조차 모르던 섬'이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이는 가거도가 철저하게 사람들의 인식 범주 밖으로 밀려나 있었음을 뜻한다. 심지어 옛날엔 유배지에서조차 차마 제외되었던 어쩌면 치외법권지역이기도 했던 곳이다. 거리상으로만 보면 제주도보다 가깝지만 그만큼 접근하기가 어려웠다는 뜻이다. 그러나 순박하고 강한 생명력을 지닌 우리 민족은 '가고, 보이니까 가고, 보이니까 또 가서' 가거도(可居島)라는 이름처럼 '마침내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 대대손손 이어가며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은 홍도와 더불어 서남해 최고의 비경을 자랑하는 관광지요 바다낚시의 천국으로 부상했다.

> 휘파람새 몇 마리쯤 통째로 삼킨 듯/푸드득 푸드득 날아오르는 푸른 휘파람 뱉어내며/물질하는 늙은 잠녀의 얼굴엔/시퍼런 파도 살점 같은 검버섯이 피어 있다/미끈거리는 갯내음에 쩔은 잠수복/투명한 잠수경에 오리발의 비애, 비애의 춤을/일순 파도 주름 위에 남기며/거듭거듭 자맥질하는 잠녀의 삶은 갯방풍의 뿌리보다 더 질긴/서러움의 돌무데기만 쌓아온 뭍의 역사/헐고 또 다시 헐어내는/성난 해일의 그것일지도 모르겠다/아니, 그 옛날 폭동의 물결에 쓸려간/아직도 젊은 남편의 비릿한 체취 풍기는 바다/거친 남성의 바다에 몸을 던지며/지근거리는 요통 두통의 골머리 수심 깊이 처박아/건져올리는 전복 해삼 멍게 따위로/생존을 확인하는 잠녀의 삶은/푸른 휘파람새 울음소리로도 지울 수 없는/가혹한 꿈의 파도 헤이며/짙은 물안개 속/가물거리는 반도의 끝 한 점 가파도를/오늘도 떠오르게 하고 있다
>
> – 고진하, 「가파도」 전문[14].

가파도 또한 가거도 못지않게 멀고 험한 섬이다. 특히 주변해역은 파도가 심하여 외항선들의 표류와 파선이 빈번한 곳이기도 하다. 제주도 본섬과 최남단 마라도와의 중간 지점에 떠 있으니 오히려 거리상으로만 보면 가거도보다 훨씬 더 멀다. 그러나 비행기라는 교통수단으로 인해 시간상으로는 가거도보다 멀지 않은 섬이 되었다.

14) 고진하, 『지금 남은 자들의 골짜기엔』, 민음사, 1990.

www.kci.go.kr

위 시는 가파도 '늙은 잠녀'의 억척스런 삶을 통해 섬이 생활의 적나라한 현장임을 잘 보여준다. 그녀의 삶을 대변하는 것은 물질로 일관해온 가혹한 노동의 세월이다. 그것은 '성난 해일'로 비유될 수 있을 만큼 거친 싸움의 역사와 같다. 그녀는 날마다 목숨을 걸고 '거친 남성의 바다' 속으로 자맥질해 들어간다. 거기에서 '전복, 해삼, 멍게' 따위를 건져 올리며 생존을 확인하는 소리가 '휘파람새의 휘파람'으로 비유된 이른바 숨비소리이다. 이 숨비소리는 겉으로는 '휘파람'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안으로는 힘겨운 한숨소리이다. 그녀가 물속을 헤엄치며 추는 '오리발' 춤은 또한 생존을 위한 '비애의 춤'이다. 이렇듯 그녀가 물질을 하며 얻은 병은 '지근거리는 요통 두통'이다. 그녀는 '그 옛날 폭동의 물결에 쓸려간'(이 구절은 제주도의 비극적 역사를 떠올리게 함) 젊은 남편으로 인해 더 모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섬이라는 공간에서 잠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맥질인 것이다. 그것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자식을 키워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잠녀에게 섬이라는 공간은 모진 세월을 살게 한 공간이기도 하고, 그 세월을 이겨내게 한 공간이기도 하는 양면성을 갖는다. 이렇듯 섬은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2.4. 역사적 진실과 환경파괴의 현장

육지와 마찬가지로 섬에도 역사가 있다. 외부 세력에 의해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아온 아픔의 역사가 그것이다. 고려시대에 강화도를 비롯한 진도와 제주도에는 몽골의 침략에 맞섰던 항쟁의 역사가, 독도에는 일본과의 영유권 주장을 둘러싼 갈등의 역사가, 또한 거제도에는 포로수용소를 둘러싼 상처의 역사가, 제주도에는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피바람이 불었던 살육의 역사가 남아 있다. 이렇듯 섬은 역사적 아픔과 진실이 묻어 있는 현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 섬은 연륙 등으로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해짐에 따라 섬다움을 잃어가고 있다. 연륙된 섬이 늘어간다는 것은 섬에서 오래도록 육지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일단 반가운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멀리 보면 그렇지도 않다. 무엇보다도 육지 사람들의 잦은 출입으로 인한 생태환경 파괴와 인심의 오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은 드문 경우에

www.kci.go.kr

해당하지만 미군의 사격장이었던 '농섬'처럼 섬 자체가 송두리째 파괴된 곳도 있다. 각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머잖아 많은 섬들이 환경파괴의 현장으로 바뀔지 모른다.

섬 하나가 몬딱 감옥이었주마씸
거넌가자 못하는 바당은 푸르당버청
보는 사람 가슴까지 시퍼렁 허게 만들엇쑤게
흐영헌 갈매기들 히영허거 날곡
눈치보멍 보말이영 깅이여 톨이영 매역이영
해당 먹엉 살아낫수게 총든
까매기들은 불타는 중산간
모을서 시커멍허게 날곡

숨도 제대로 못 쉬었주마씸
하늘님아 하늘님아 하늘님까지
누렁하게 무서웠주마씸 경해도
경정 살아낭 볼렛낭 아래서
꿩독새기 봉그곡
불탄 자리엔 고사리들 왕상허게 크곡
구랭이들 허물 벗는
석석한 보름에 눈이 시령 사월
보름 어디선가 자꼬 불어왕
연둣빛으로 꼬꾸라지곡 연둣빛으로
무싱거 마씸
자유가 어디 있었쑤강
섬하나가 몬딱 죽음이었주마씸.

– 문충성, 「섬 하나가 몬딱」 전문[15].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인 제주도는 이념분쟁으로 인한 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섬이다. 제주 4.3항쟁이 그것이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16]에 따르면, "제주 4·3사건(濟州四三事件)은 1947년 3

15) 문충성, 『제주바다』, 문학과지성사, 1978.

www.kci.go.kr

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사태와 그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가 한때 살육의 섬으로 인식되어왔으며, 아직도 제주도 사람들 중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잠들지 못하는 이가 많다고 한다.

제주도 출신 대표시인인 문충성의 위 시는 제주도의 아픈 역사를 단적으로 들려주고 있다. 제주 방언으로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 시어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긴 어렵지만 그래도 대강의 문맥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시는 '섬 하나가 몬딱 감옥이었주마씸'으로 시작하여, '섬 하나가 몬딱 죽음이었주마씸'으로 끝난다. 한마디로 4.3항쟁으로 인해 제주도 사람들은 몽땅 '감옥' 같은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으며 또한 제주도가 몽땅 '죽음'의 현장이었음을 증언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제주도 사람들의 공동체가 서로를 불신한 채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비극의 역사를 담고 있다. 이렇듯 이 시는 제주도가 역사적 진실의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황사바람 뿌옇게 부는 토요일, 고온리 사람들 창자 울리는 폭격기/폭음 들리지 않는 날이다. 고온리를 큐니로 들은 양키들, 이른바 큐니/사격장이 쉬는 날이다. 며칠 전 '사격장을 아메리카로'라고 외치며 철조망을 넘어가 과녁 위에 누웠던 주민들 몇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고 시위 재발 대비해 사격장 한 켠에 백골단 진치고 있는 날이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휴일에만 출입할 수 있는 드넓은 개펄에는 /도요새 게구멍을 파고 남정네들 낙지를 잡고 아낙네들 조개를 캔다.
>
> 물 들면 물살에 몸을 적시다가 썰물 때면 개펄 위로 떠오르는 섬. 온갖 바다새 뭍새 알 낳아 품던 무성한 숲은 신기루가 되고 이제 풀 한/포기 자라지 않는 벌거숭이 섬. 농섬에서 쇳덩이를 캐는 사람도 있다./ 섬에 쏟아지는 하고많은 폭탄, 폭탄이 박아놓은 쇠덩이다. 육이오 때부터/ 폭격이 그치지 않는 농섬. 필리핀이나 괌의 미군기까지 날아와 전쟁/ 연습하는 농섬, 폭격으로 처참하게 무너지며 새삼 식민지가 무엇인지/묻는 농섬. 너를 귀머거리 벙어리라 여기며

16)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유족들에 대한 국가지원을 근거로 담은 이 법안은 2013년 6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www.kci.go.kr

등 돌리는 자 누구인가. 너의 간절한 외침 파도소리에 실려오는데 귀에 말뚝 박고 태극기를 높이/흔드는 자 누구인가.

– 최두석, 「농섬」 전문[17].

농섬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읍 매향리에 있는 섬이다. 2000년 5월 주한 미공군의 항공기 폭탄 투하로 촉발된 '매향리 사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곳이다. 이 섬은 1951년 한국전쟁 중 미군이 해상 표적으로 삼고 사격을 시작한 이래 2005년 8월 사격장이 완전 폐쇄될 때까지 약 60년 간 폭격이 이루어져 섬 자체가 초토화되었다. 이로 인해 섬의 생태환경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최근에 미군으로부터 소유권을 되찾고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번 파괴된 농섬의 생태환경은 복원되지 않은 채 여전히 중금속 오염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위 시는 바로 이 '농섬'의 현재를 비판적 시각으로 다루고 있는 이는바 '해양생태시'[18]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이 이른바 '큐니/사격장이 쉬는 날'을 택해 매향리의 옛 이름인 '고온리'를 다녀와서 쓴 시로 보인다.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펼치다 구속되고, 시위 재발을 막기 위해 '백골단 진치고' 있는 걸 보면 싸움이 한창 진행되던 2000년 초반쯤에 창작된 듯하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러한 와중에도 누군가 한 켠에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휴일에만 출입할 수 있는 드넓은 개펄에는/도요새 게구멍을 파고 남정네들 낙지를 잡고 아낙네들 조개를 캔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농섬'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다. 사격훈련이 있는 날 그들의 생계는 묶여 있을 것이다. 2연은 농섬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며 '식민지' 약소국가로서의 슬픔과 '귀머거리 병어리' 농섬이라며 '등 돌리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준엄하게 묻고 있다(그들이 누구인지는 굳이 설명이 따로 필요 없겠다). 과거에 농섬은 '물 들면 물살에 몸을 적시다가 썰물 때면 개펄 위로 떠오르는 섬. 온갖 바다새 뭍새 알 낳아 품던 무성한 숲'이었다. 매화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생태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풀/한 포

17) 최두석, 『성에꽃』, 문학과지성사, 1990.

18) 신진 시인은 「한국 '바다시'와 그 유형」(『비평문학』 23호, 2006. 8. 172쪽)에서 "바다시가 심각한 생태파괴현장과 역사적 모순을 고발하면서, 우리나라 생태운동을 선도한 것은 문화사적인 의의의 하나로 여길 만하다"고 했다.

www.kci.go.kr

기 자라지 않는 벌거숭이 섬'이자 미군기가 '전쟁 연습하는' 섬으로 전락했다. 특히 시인은 '농섬에서 쇳덩이를 캐는 사람도 있다'는 진술을 통해 우리가 섬의 생태환경을 철저하게 파괴했을 때 닥칠 수 있는 위험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생하게 경고하고 있다.

2.5. 존재론적 소통과 열림의 다리

앞에서 살펴본 시 속에 나오는 섬들은 모두가 구체적으로 실재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섬이 항상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간으로서 자리하는 것만은 아니다. 인간의 인식 속에 공간은 상상의 공간으로 추상화되어 드러나기도 하며, 심미적인 공간으로서 인식을 지배하거나 인식에 관계하기도 한다. 이푸 투안이 『공간과 장소』에서 말한 바처럼, "거리는 접근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또한 관심의 정도를 의미한다. 인간은 살아가는데 중요한 타인들과 대상들에 관심을 가진다. 사람들은 그 중요한 타인들이 자신들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 가깝다는 것은 친밀감과 지리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결합된 것이다."[19] 다시 말해 지리적 거리가 갖는 의미는 인간의 근원적 정서를 형상화하는 공간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근래 들어 우리 현대시에도 내면화된 실존적 존재로서 '섬'을 노래한 작품이 늘고 있다. "도시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 각자의 마음속에 이미 각각 다른"[20] '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 그 섬에 가고 싶다.
>
> – 정현종, 「섬」 전문[21].

위 시는 섬을 이야기할 때 누구나 한번쯤 떠올릴 만큼 널리 알려진 작품이

19) 이푸 투안/구동회 · 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윤, 1995 참조.
20) 조규익, 「해양시가의 관습성」, 『제3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자료집·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2, 7쪽.
21) 정현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미래사, 1997.

www.kci.go.kr

다. 그러나 단 2행 속에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위 시에서 섬은 실존하는 섬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구체적이지 않다. 다만 '사람들 사이'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 혹은 경계로, 추상적이고 심미적인 거리를 의미한다. 이 시에서 '사이'는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의 단절을 뜻할 수 있다. 이는 섬 자체가 지닌 고립감 혹은 격리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섬은 고독과 외로움으로 둘러싸인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화한 것이 된다. 그만큼 현대인은 겉으로만 왁자지껄할 뿐 속으로는 고독과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각각의 섬인 것이다. 그러나 위 시는 2행 '그 섬에 가고 싶다'에 함축되어 있듯이 섬이 이러한 현대인들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소통의 징검다리라는 이중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즉 섬은 외로움, 고독, 단절을 뜻하기도 하지만, 소통과 열림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끼리의 소통하고 싶은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낮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 함민복, 「섬·4」 전문[22].

위 시는 섬이 지닌 고립성 혹은 폐쇄성에서 벗어나 개방성을 지닌 열림의 공간임을 보여준다. 이는 섬이 바다라는 탁 트인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섬의 입장에서 보면 바다는 '물울타리'이다. 그런데 그 '울타리'는 물이기에 '가장 낮'고 평등하다. 경계를 목적으로 하는 '울타리'가 '가장 낮다'는 것은 막힘이 없이 가장 잘 통하고 잘 보인다는 뜻이다. 그래서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라는 드라마틱한 역설이 성립된다. 길의 소통을 방해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울타리 자체가 곧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다라는 울타리로 인해 자기들끼리의 교류가 자유로운 섬은 전도양양한 열림의

22) 함민복, 『말랑말랑한 힘』, 문학세계사, 2005.

www.kci.go.kr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옛날 장보고도 섬을 징검다리 삼아 중계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결론

앞에서 구체적으로 살폈듯이, 한국의 현대시에 나타난 '섬'의 공간적 인식이나 의미는 '외로움이나 그리움의 공간'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치유와 구원의 장소', '소외와 척박한 삶의 공간', '역사적 진실과 환경파괴의 현장', '존재론적 소통과 열림의 다리'로 매우 다양한 진폭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망은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섬의 공간적 인식과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현대시가 보여준 인식이나 의미망을 더욱 확대하여 새로운 시대와 현실에 걸맞게 작품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기후 변화나 바다 오염으로 인한 섬 생태계의 변화라든지, 연륙교 건설로 인한 섬의 환경파괴와 정체성 문제, 섬의 문화적 원형에 대한 탐구와 보존, 안 보이는 바다 속의 해양생태 등 오늘날 우리의 섬들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작품 속에 새롭게 반영하는 것이 그것이다. "섬의 태생적 한계에 갇히지 않는 새롭고도 자유로운 상상력"[23]을 펼쳐 보여야만 '섬'을 테마로 한 한국의 현대시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은 서론에서 밝힌 바대로 하나의 시론적 성격이 강해서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뚜렷한 인용 작품 선정기준이나 방법론의 부재, 통계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한다.

23) 이경수, 「두 개의 시선, 섬의 이중성-90년대 이후의 섬의 시」, 『여수작가』 창간호, 여수민예총문학위원회, 2013, 82쪽.

www.kci.go.kr

〈참고문헌〉

가스통 바슐라르/이가림 역,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86.
가스통 바슐라르/이가림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강봉룡, 「'도서해양'에 대한 인식의 굴곡과 변천」, 『제3회 전국해양문화학자 대회 자료집·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2.
고진하, 『지금 남은 자들의 골짜기엔』, 민음사, 1990.
구모룡, 『해양문학이란 무엇인가』, 전망, 2004.
김기태, 『세계바다와 해양생물』, 채륜, 2008.
김선태, 『그늘의 깊이』, 문학동네, 2014.
김명수 · 최영호 편, 『내 마음의 바다·1』, 엔터, 1996.
김영원 · 신동규, 『항해와 표류의 역사』, 솔출판사, 2006.
남진숙, 「한국 현대 '해양생태시'의 특징 및 의의」, 『제3회 전국해양문화학자 대회자료집·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2.
남진숙,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섬의 공간성 및 그 의미」, 『도서문화연구』 제42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3.
노드롭 프라이/김상일 역, 『신화문학론』, 을유문화사, 1971.
문충성, 『제주바다』, 문학과지성사, 1978.
박수현, 『재미있는 바다생물 이야기』, 추수밭, 2006.
에드워드 렐프/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1996.
오세영 외, 『내가 사랑하는 섬』, 굿글로벌, 2010.
윤명철, 『한국해양사』, 학연문화사, 2003.
윤치부, 『한국 해양문학 연구』, 학문사, 1994.
이경수, 「두 개의 시선, 섬의 이중성-90년대 이후의 섬의 시」, 『여수작가』 창간호, 여수민예총문학위원회, 2013.
이동근, 『역사와 해양의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이생진, 『먼 섬에 가고 싶다』, 평단문화사, 1995.
이재무, 『시간의 그물』, 문학동네, 1997.
이푸 투안/구동회 ·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윤, 1995.

www.kci.go.kr

장 그르니에/김화영 역, 『섬』, 민음사, 2008.
정현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미래사, 1997.
조규익, 「해양시가의 관습성」, 『제3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자료집·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2.
조태일, 『가거도』, 창작과비평사, 1983.
주경철, 『문명과 바다』, 산처럼, 2009.
최영호, 『한국해양문학선집』, 한국경제신문사, 1995.
함민복, 『말랑말랑한 힘』, 문학세계사, 2005.
황을문, 『해양문학소요』, 전망, 2001.

www.kci.go.kr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섬'의 공간적 인식과 상징적 의미를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핀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바다'와는 달리 '섬'에 대한 외형적 공간인식을 넘어선 문학적 차원의 접근이나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설에 비해 시를 통한 섬의 공간인식이나 의미 탐구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와 관련한 하나의 시론(試論)의 성격을 갖는다.

한국의 현대시에 나타난 '섬'의 공간적 인식이나 의미는 '외로움이나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치유와 구원의 장소', '소외와 척박한 삶의 공간', '역사적 진실과 환경파괴의 현장', '존재론적 소통과 열림의 다리'로 매우 다양한 진폭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망은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섬의 공간적 인식과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현대시가 보여준 인식이나 의미망을 더욱 확대하여 새로운 시대와 현실에 걸맞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기후 변화나 바다 오염으로 인한 섬 생태계의 변화라든지, 연륙교 건설로 인한 섬의 환경파괴와 정체성 문제, 섬의 문화적 원형에 대한 탐구와 보존, 안 보이는 바다 속의 해양생태 등 오늘날 우리의 섬들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작품 속에 새롭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섬, 한국 현대시, 공간, 의미

www.kci.go.kr

【Abstracts】

The Korean Modern Poetry and Islands

– Focusing on the Spatial Recognition and Meaning –

Kim Seon-tae

This paper classifies and investigates the symbolic meanings of 'island' and its spatial recognition in Korean modern poetry.

It is rather conservative to say that research on 'islands' in Korean modern poetry is at the beginning stage reflecting geospatial recognition on them, when compared to researches on 'sea' in Korean novels. This research is, therefore, a kind of an attempt to propound ars poetica of islands in Korean modern poetry.

It can be well read off that islands in Korean modern poetry show a wide spectrum of the spatial recognition and meaning: the subject of longing and loneliness, the place for healing and salvation, the space of alienated and barren life, the site of historical truth and environmental disruption, and the bridge of ontological understanding and opening.

The understanding above, however, is all too common and resembles the spatial recognition and meaning of islands in literature up to now. Our current times request thus new understandings of islands. In this respect, Korean modern poetry should discuss and manage pending problems which islands of Korea undergo nowadays: ecosystem change of island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marine pollution, environmental disruption and

www.kci.go.kr

identity confusion of islands from building bridges to mainland, investigation on cultural archetypes of islands and their reservation, and ocean ecology under the sea.

Key words: island, Korean modern poetry, space, meaning

이 논문은 2015년 6월 14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8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8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

www.kci.go.kr